

실직후의 경험에 대한 소고

홍영표*

나는 대기업의 외식사업부에서 만 5년간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사의 간접적인 자체 구조조정 속에 소속 부서의 사업성 불투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룹내 유사업종 계열사에 배치되어 적응하던 중 소속감·연대감 결여로 자의반 타의반 자진 퇴사하였다.

1997년 말 퇴사를 신중히 고려하다가 1998년 1월 1일부로 일신하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외식업(프렌차이즈)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친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마침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라 위탁경영이라는 이야기까지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IMF라는 어려운 실정 앞에 놓이게 되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어,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 장사에 뛰어들어 보려했던 나의 도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나오게 되어 취업알선 창구를 전전하며 그야말로 매스컴에서만 듣던 현시대 아픔인 '실직자'라는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휴식기간이라 생각하고 각종 실업대책이 쏟아져 나오

고 있어서 나름대로 해당되는 부분을 찾게 되었다. 그 중 첫번째가 대응제약회사에서 실시한 창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이었다. 그러나 내심 '당장에 밀친도 없이 무슨 창업인가' 혹은 '실직자 모임이라던데 그곳에서 무슨 도움을 얻으라'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향후 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참가하게 되었다.

올 3월 말에 4박 5일 과정으로 대응경영 개발에서 주최한 '실직자 창업훈련과정'은 뜻밖의 내용에 참가하기를 잘했다라는 위안을 얻게 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공하는 무료교육이라 무슨 내실이 있겠냐 했던 나의 우려는 사라졌고, 4박 5일 동안 숙식했던 교육장소 또한 안락했으며 정말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성개발부터 상업적 입지분석요령, 사업계획서 작성법, 세무관련업무, 노동부관련 연계업무사항, 고객확보 마케팅전략 등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실직이라는 아픔 속에 동참한 약 50여명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모여 대화와 활동을 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에게

* 실업자취직훈련 이수자로서 조리사 자격취득후 현재 구직활동중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되어 제도의 좋은 점도 알게 되었다.

한편 당시 참가했던 훈련생 대부분이 은행 퇴출 초기인데도 은행원 출신이 80%나 되어 본격적인 퇴출을 예고하는 듯했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연령이 대부분 40~50대라 한 가장의 실직위기를 목전에서 느낄 수 있었다.

창업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얻기도 했지만 시행초기라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 창업 실무자들의 생생한 현실경험적 얘기가 많이 부족했고, 둘째로 강사진의 성의부분이 표가 나게 차이가 나기도 했으며 특히 노동부 관련 강사의 설명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고용보험료 납부자에 한해서만 참가할 수 있고, 개별 참가시 40~50만원의 수강료 부담을 내야 하는 부분이었다. 물론 영리가 목적이란 그런 것도 있지만 의외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현재 사업 중 보다 질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이 교육후 얼마간 막연하나마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에도 마땅한 취업자리가 나서지 않아 노동부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해놓고, 방송국 실업대책, 신문사 취업코너, 박람회 등을 다니며 자격증, 취업, 직업훈련 등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야할지 막막함 뿐이었다. 실업률 6~7%, 실업인구 145~160만명이라는 현실이 나를 더욱 짓누

르고 있었지만, 그나마 고용보험 수혜혜택 23만명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 고자 나설 수 있게 하였다.

실직자를 위한 대부를 받아보려 했으나, 소문에 듣기로는 관계서류를 구비해 은행 대부를 받으려 해도 은행입장에서는 '퇴출이다, 합병이다, BIS비율 맞춘다' 해서 은행돈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해 실직당사자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조건으로 시시비비만을 따져 막는다고 했다. 그 결과 이용률이 많지 않자, 요즈음은 TV·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6월 발표에 의하면 대부계획예산 중 3분의 1만을 집행하려 하고 나머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고용촉진에 3분의 2를 사용하려 한다고 하니 더욱 대부받는 것은 어려워질 듯하다.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이며 향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던 중, 현재 나는 지난 4월 말부터 고용촉진훈련생과정인 요리학원의 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다니고 있다. 의욕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것이 실직이라는 고통을 헤쳐보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과정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물론 노동부 지원)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교육과정이 본래 일반인 과정(2~3개월)에 비해 약 2배 가량(1일 4~6시간으로 6개월) 길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노동부의 타교육과정과 엇비슷한 교육기간을 잡아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교육생·학원측 모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정규과정으로 교

육후 취업을 적극 알선한다든지 자격증 취득 실패시 동일교육을 재수강하도록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쨌든 일단 시작한 교육이니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실직자를 다룬 ‘풀먼쓰(Full Month)’라는 영화이야기를 쓰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영국의 한 제철소 실직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껴 남자 스트립쇼를 시도하려 하면서 겪는 애

환을 담은 영화이다. 그들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자유스럽게 무엇인가에 희망을 걸고 그 희망을 이루려는 과정들이 아름다웠다. 현재 알고 있는 우리의 실업문제와 틀린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잃으면 망망대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는 실업극복 대책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겠다.